



사전투표 인증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사진 좌)와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사진 우)가 투표소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기준금리 2.75%→2.50%로 한국은행, 0.25%p 하향 조정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2.50%로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금리인하 배경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였

으나,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달러와 지수는 소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지연과 수출 둔화로 1/4분기 역성장애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영목 기자

## 오늘 사전투표 종료...전북 투표율 50% 과반 관심

첫날 30%대, 전국 두번째 높아  
민주주의 회복 유권자 열망  
평일 불구 최고치 경신 기대

D-4 6.3 대선

본보 29일자 1면 예측 보도처럼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오후 5시 기준)이 29.64%를 기록, 전국에서 전남(32.02%)이 두번째로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777만1천218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특히 20대 대선 사전투표는 휴일이 끼어있었으나 이번 21대의 경우 평일임에도 높은 투표율을 보여, 그만큼 이번 대선의 중요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더욱이 전북지역 기관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사전투표행렬에 적극 참여하고 유권자들도 정권심판에 대한 강한 참정권 행사로 투표소마다 긴 행렬이 이

어졌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시군수 242 읍면동에 566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전북의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 유권자수는 151만 416명이다.

30일 사전투표를 마감하게되면 사전투표 도입 이래 사상 최고치인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대 대선은 본투표 대비 사전투표율이 48.6%로 절반에 근접했다. 전북지역 유권자들의 높은 사전투표 참여 배경은 내란사태 이후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사명과 함께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도내 야권에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전 당원이 총동원돼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던 것도 한몫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사전투표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김 지사는 "한 표를 행사하니 마음이 든든하고 전북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과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또 전북을 방문한 개혁신당 김용태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도 한 표를 행사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높았음 관계 없이 선거업무 자체에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한 선거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새만금 'JOB'박람회, 이차전지 인재 모은다

이차전지 40개 유망기업 참여  
현장면접·직무컨설팅·AI 특강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은 오는 6월 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2025 새만금 JOB Going with 이차전지'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자치도, 군산시,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테크노파크, GSCO 등이 공동 주관한다.

특히 박람회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고용특구 지정과 이차전지 산업 중심의 지역 전략에 맞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정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 주요 대학을 비롯해 공공기관, 공기업, 이차전지 중심의 40여 개 유망기업이 참여한다.

각 기업과 기관은 부스를 운영하며 채용정보 제공, 현장 면접,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구직자와 소통할 예정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직무탐색 및 자기소개서 면접 등 1:1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기업 현장 채용 면접, 금융 특강, AI 활용 실무 특강을 제공하며, AI 면접체험관, 워라밸관, 취업 사진 촬영 등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이차전지 기업 현장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새만금 고용특구 내 주요 이차전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산업 현장을 체험하고 실무자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영태 기자

## 전북자치도 "섬(島)이 바뀐다"

4대 핵심 섬 1,071억 투입  
해양주권·영도수호 전초 전환

전북자치도는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국토 균형발전과 해양주권 강화 위한 4대 핵심 섬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4대 핵심 섬 지원사업에는 총 1,071억 원(국비 882억 원, 지방비 189억 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도내 유인도서 25개, 총 3,981명 주민을 대상으로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사람이 살고 일하는 지속 가능한 섬'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섬발전사업'은 「섬발전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섬종합개발계획(2018~2027년)'에 근거해 추진 중이다.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시군 22개 섬을 대상으로 도로, 방파제, 물양장, 인도교, 관광로 등 총 979억원을 투자해 55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27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산 선유도의 내부 관광로, 고창 내죽도의 방파제 설치가 완료됐다.

올해는 말도·명도·방축도 간 인도교 설치 등 11개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섬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사업과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현재 군산 말도·무녀도를 포함 총 8개 섬이 대상이며, 전체 예산은 82억 원(국비 66억, 도비 8.2억, 시비 8.2억) 규모다. 특히 섬당 최대 50억 원, 최대 9년간 4단계에 걸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2025년에는 개야도, 아미도, 신시도 등 6개 섬에 오케아관광, 어촌관광농원 등 지역맞춤형 특화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섬마을 LPG시설 구축사업'은 도서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LPG 저장탱크, 배관망,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2~'26년 동안 군산 개야도, 어청도, 연도 및 부안 위도(식도) 등 8개 섬, 총 676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업비는 73억 원(국비 42억, 지방비 22억, 소멸기금 8.6억)이다. 2024년까지 3개 섬이 완료됐으며, 2025년에는 개야도·연도·식도 등 4개 섬에 7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된다.

'작은섬 공동방지사업'은 인구 10명 미만의 섬이 무인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주 인프라를 지원한다. 전북에서는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4년간 총 19억이 투입된다.

/김영태 기자



# 소방·재난안전 전문가 9백명, 이재명 지지 선언

## “김문수 소방헬기 사적 이용 의혹 논란 바로잡아야”

전국 소방 및 재난안전 전문가 900명이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단체들은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소방헬기를 총 43회 사적으로 이용했고, 산불 발생 중에도 지역행사 참석을 위해 소방헬기를 4회 이용한 전력이 있음에도, 흉기 테러 생명이 위태로웠던 이재명 후보의 정당한 소방 구조헬기 이송을 비난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방을 정치적 소재로 삼는

구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며 “이재명 후보는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후보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실천한 인물에게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지지 표명을 넘어 △소방헬기 왜곡 논란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진실을 바로잡는 행동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촉구하는 양심의 외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호영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수석 부단장은 “오늘 지지선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의 진심에 대한 소방가족과 재난안전 전문가분들의 응기 있는 결단이며 모인 역사적인 자리”라며 지지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렸다. 이어 “재난을 바라



전국 소방 및 재난안전 전문가 900명이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보는 두 후보의 인식과 철학, 행동의 차 주실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평가해 /서울=김영목 기자



## 전북도, 수소충전소·생산기지 합동 점검

### 전주·익산·완주 총 7개소 안전관리 기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수소에너지 기반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대상은 '전주, 익산, 완주 지역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기지'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관할 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 참여했으며,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대상은 △기체 수소충전소 3곳 △액화 수소충전소 3곳 △완주 수소생

산기지 등 총 7개소다. 점검반은 수소 생산설비의 압력·온도 관리 시스템, 저장탱크, 수소 이송라인 등 주요 설비의 작동 상태와 설비 노후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일시적 작성 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향후 개선사항에 반영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정착시켜 장기적인 수소 인프라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 김윤덕 사무총장 “총보다 투표가 강하다”

## 사전투표 첫날 투표 진행 시민들에 투표 참여 호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북전주시갑)은 29일 전주시 일원을 돌며 '사전투표 독려'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김 총장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중화산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투표를 진행하면서 “총보다 투표가 강하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윤덕 총장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12.3 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

생을 살려내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다”고 말한 후 “윤석열 내란을 진압한 빛의 혁명과 광장의 연대는 이번 투표로 완성될 것이며 모두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선거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서울=김영목 기자



# 이준석 “젓가락 발언’ 이재명 장남 글 인용한 것”

## “제 질문 어디에 혐오 있나” 철저한 가족 검증 필요성 강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9일 소위 '젓가락 발언' 논란에 대해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씨의 게시물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응답패설에 해당해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표현에 대해서 전담에 이어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됐고 수위를 넘는 응답패설을 이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

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우리는 (윤석열의) 채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며 “다시 김해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며 이 후보의 가족의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에 대한 도덕적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임기 내내 부인을 방탄하다가 정치적 곤경에 처했다”며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가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장했다.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라면서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3천만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다”고 도박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이다. 그런 인물



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느냐”면서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고 가족 검증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나.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이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이라면서 “저는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력 반박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지방자치 강화 업무협약

### 한국자치행정학회와 맞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9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사)한국자치행정학회와 지방자치 강화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승우 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사)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합의했다. /김영태 기자

주요 협약 내용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제도 마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지방행정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 등이다. 문승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지역현안을 더 내밀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첫걸음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도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 대선 투·개표소 점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내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대상은 화산체육관(개표소)과 근영여자고등학교(투표소),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투표소) 등이며, 사전에 현장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이 이뤄졌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앞서 관내 투·개

표소로 지정된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피난시설,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투표소 내부 피난 동선 및 유사시 대피 동선 확인 △소방시설 확인 등이 이뤄졌다. 특히, 소방서장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철저한 예방을 당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대통령 선거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음주운전 NO !**      **안전을 위한 당신의 선택**      **대리운전 OK !**

**JBT 전북타임스 안전한 교통문화 캠페인**

# 전주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본격화

## 총괄감독 오영재 교수 선임 팔복동 중심 전통미래 융합 미래문화도시 설계 수행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핵심인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마무리하고, 3년간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된 이후, 총괄감독 선임과 민간협력지원단 운영,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등 그간 추진해온 핵심 추진체계 정비에 완료됨에 따라 지역 문화생태계 혁신과 시민 참여 중심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지난해 추

진된 예비사업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국비를 포함해 총 33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시는 팔복동 일원을 중심으로 전통과 미래기술이 융합된 미래문화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 가능한 실행을 위해 시민과 예술가,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력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민간협력지원단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3대 특구(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간 연계 강화를 도모해 시민과 함께 문화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 방향인 '전통문화 기반 미래문화 콘텐츠 창출'을 구현할 책임자로 디지털아트 분야

의 선도적 예술가로 평가받는 오영재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총괄감독으로 선임했다.

오영재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에서 컴퓨터아트를 수학한 후, 연세대학교에서 영상예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디지털아트 1세대 예술가다. 그는 전통 소재와 디지털미디어를 융합한 창작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앞으로 팔복동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총괄하며 콘텐츠 기획과 운영 전략을 이끌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문화도시 사업의 장기적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사업 전반의 정책·계획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자문기구로, 문화·예술·산업·기술·학계·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5

인 내외의 위원들이 활동하게 된다.

향후 구성될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지역 고유의 문화역량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주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총괄감독 선임과 두 기구의 활동을 통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실행 체계가 마련된 만큼, 향후 추진될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팔복동 일대를 전통문화 기반의 미래문화 거점으로 조성하고 전주의 문화정체성과 시민 창의성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의 전주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 집중 홍보

### 국제그림책도서전 축제 연계 홍보 캠페인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이하 완산병커)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주요 축제 현장에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치중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 펼쳐진 전주정원산업박람회와 지난 24일 막을 내린 전주비비오그랑프리 등 전주지역에서 펼쳐진 5월 축제 현장에서 완산병커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 축제 현장에서 완산병커의 위치와 특징, 역사, 할인 행사 등

각종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어지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과 오는 31일과 6월 1일 펼쳐지는 '전주단아' 등 전주의 5월을 대표하는 축제 현장을 찾아가 홍보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 현장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완산병커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의 다양한 축제·행사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복지재단, 온도플러스 지원사업비 3,500만원 전달

## 6개 선정기관, 생활지원 등 총 6개 품목 지원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29일 새롭게 위기가정을 총총히 살피는 '2025년도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에 대한 사업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연대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복지 문제 해결과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추진되며, 재단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6개 기관에 총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전달했다.

선정기관을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웃사랑 공동체에는 완산구 해바라기 봉사단과 평화사회복지관이 선정됐다. 또, 전주다시서기기지원센터와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이 역량강화 공동체로, 여명노인복

지센터와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생활지원 공동체로 각각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

각 공동체는 유형별 특화 접근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고립 예방 △취약계층 자립역량 강화 △생활 교류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모델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각각의 장점과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주민 주도형 복지공동체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단체들과 함께 취약계층 확산 지원을 위한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면서 "수



행기관들이 재단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해 '이웃이 이웃을 지키는 주민 복지안전망 구축'에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취약계층 지원

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눔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들의 기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 서신동·삼천동 노후 상수관 교체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4차 추진

전주시가 삼천동과 서신동 일대의 주거·상업지역에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 상하수도분부는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4차 정비공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3월부터 서신동과 삼천2·3동 일원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맑은물공급사업은 노후 상수 관로를 교체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하고, 누수량 저감 및 유

수율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4차 정비공사는 서신동과 삼천2·3동 일원의 노후 상수관로 35km를 교체하는 것이 핵심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1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종성 전주시 상하수도분부장은 "노후 수도관 정비를 위한 도로 굴착과 관로 교체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 구간 내 주민들에게 공사 일정에 대한 사전 홍보에 집중하고, 임시 급수시설 설치를 통한 단수 예방 등의 노력으로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4차 정비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완주소방안전협,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

## 안전문화 확산·산업체 맞춤형 재난 대응 방안 모색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29일 전주·완주소방안전협의회(회장 김현중)가 회원사가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단체 참관하며 민간 중심 소방안전 리더십을 발휘했다.

전주·완주소방안전단 내 주요 기업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참관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최신 소방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체 맞춤형 재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교육의 장'으로 주목받았다.

협의회는 이번 참관을 통해 회원사들이 스스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자율적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위험물 관

리, 전기차 화재 대응, 첨단 소방로봇 및 무인장비 등의 전시를 집중적으로 탐방하며, 산업현장의 특수성과 연계한 실무 노하우 확보에 주력했다.

전주·완주소방안전협의회 회장 김현중 과장(전주페이퍼)은 "산업현장 소방 안전은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이번 박람회 참관은 각 기업이 '어떻게 우리 사업장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공유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안전정보를 활발히 교류하고, 전주덕진소방서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안전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전주완주소방안전협의회는 지역 소방안전의 중추로, 평소에도 소방훈련과 위험물 안전관리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 참관을 계기로 민·관이 합



계하는 재난대응 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자체 안전워크숍과 실무자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

며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은 실천에 가깝게"라는 원칙 아래 산업단지의 선도적 안전모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구강보건실' 구강건강 증진 한 몫

전북자치도 전주시와 지역사회 치과의사들과 함께 운영 중인 '구강보건실'이 특수학교 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에 따르면 전주시치과의사회 봉사단체인 '행복한 동행 봉사회' 소속 치과의사들이 매주 목요일 '구강보건실'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꾸준한 의료봉사를 이어가면서 민간협력 사업이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봉사회 소속 치과의사들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충치 치료와 신경 치료, 유치 및 사랑니 발치 등 치료와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비급여 보철치료(크라운 등)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치료 방법이 쉽지 않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치료비는 봉사회와 진료를 맡은 원장이 함께 부담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보철치료 등 약 700만 원을 지원했다. 현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철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치과의사회 등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연계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보건소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앞으로도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바탕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건강한 성장·자립 역량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트레이너협 바디포커스,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와 전북트레이너협회 바디포커스(대표 김현지)는 29일 지역사외 연계를 통해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트레이너협회 바디포커스는 전주시 청소년에게 전문 트레이너 인력과 맞춤형 체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주지역 학교밖청소년들은 진로탐색 및 직업재능 기회를 제공

받는 것은 물론, 체력 증진과 정신적 웰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혜선 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심리·교육·자립·복지·문화활동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승화원, '윤달' 기간 유골 화장 확대 진행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승화원이 윤달 기간 개장 유골 화장 횟수를 늘린다.

29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성)에 따르면 전주승화원은 윤달 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29일간 개장 유골 화장 횟수를 하루 최대 28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하루 8구 정도인 평일의 3.5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다.

윤달 기간 개장 유골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은 관내 지역의 화장 예정일 전 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화장은 7월에 한다면 6월 1일부터, 8월에 한다면 7월 1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관외 지역은 화장 예정일 전날 오후 1시 이후 예약이 가능하다.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서 먼저 묘지 소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부여된 관리 번호를 등록해야 화장 예약이 가능하다.

이정주 복지환경부장은 "윤달 기간 개장 유골 화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북은행, 아동복지 환경개선 4억 지원

### 도내 40여 시설 개선 지원 책상·장판 교체 등 실질 해결 지역아동복지 13년째 지속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지사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후원금 4억 원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은행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은행으로서 ESG경영 실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고자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아동센터 등 40여 곳을 발굴해 책상, 의자, 책장,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며 사회공헌 전담부서에서 직접 시설방문 및 의견청

취, 고충해결 등을 윈스톱으로 진행함으로써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황철호 복지여성보건의료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이은영 사무처장,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오현권 부행장, 정영민 전북특별자치도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자"고 전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전북의 미래를 밝히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전북은행은 13년 동안 지속해온 'JB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올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지사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후원금 4억 원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전북도>

대폭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기관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탄탄한 경쟁력을 가진 강한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지역 아동센터 등 197곳, 약 4,800여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총 8억 4천여만 원 상당의 'JB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이어왔으며, 2024년부터는 JB금융그룹 핵심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더욱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논콩은 6월 상순이 파종의 적기이나 장마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말부터 파종을 서두르고 있다. <사진=전북농기원>

## 전북의 대표적인 전략작목 '논콩' 파종 적기

### 농촌은 지금

논콩은 쌀 생산 과잉에 따른 대표적인 논 대체 작목이다.

전북자치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논콩을 재배하고 있고 2024년 기준 13,234ha로 전국의 53.5%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전략작목육성 시책 등으로 면적은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 콩은 6월 상순이 파종의 적기이나 장마기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부터 파종을 서두르고 있다.

전북은 논콩의 선두주자로 발작물에서 재배하는 것과 다르게 기계화작업이 98.4% 가능하고 땅을 파지 않고 배수관을 묻는 무굴작 배수 시설이 김제시 죽산면 주산단지에 시범적으로 보급되어 이상기상으로 나타나는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파종과 동시에 초기 제초제의 살포가 가능하여 잡초 방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논콩은 파종할때에는 3cm 깊이 이내로 한 구멍 당 2알씩 심으며, 구멍 간격은 15~30cm가 적당하고 논콩의 경우 일반 밭에서 기르는 일반 콩과 다르게 습해를 받지 않도록 두둑을 높이 만들어 주어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지역에 알맞은 품종은 '선풍', '대찬', '선우2호', '청자5호' 등이 적합하며, 품종마다 생육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콩의 경우 다른 작목과 다르게 생육 초기 뿌리에 근류균이 생겨 공기 중 질소를 직접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과도한 질소 시비를 삼가야 쓰러짐과 병해충을 예방하고 품질을 높여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논콩은 생산 기반이 밭과 다른 조건으로 파종기에 배수로 시설과 잡초방제를 정밀하게 관리해 생육 기간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를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공=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 전주상공회의소 '2025 미래내일 일경험' 본격화

### 실무 제고 체계적 사전교육 청년 취업경쟁력 강화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 대상으로 사전직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직무교육은 전북지역 미취

업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직장 내 기본 소양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 이해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관계법 등 실무 중심의 기초 직무교육으로 구성되며, 청년들이 인턴 활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종료 후 참여 청년들은 오는 6월부터 8주간 기업에서의 인턴형 일경험을 시작하게 되며, 활동기간 동안 최대

28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기업에게도 기업지원금 등이 별도로 지급되며, 기업과 청년이 상호 부담 없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의 장점이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은 지역청년과 기업 간 효과적인 매칭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전북권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전주상공회의소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 10인 이상 기업(또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전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산업진흥부 일자리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한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

### 사업자 27개사 60여명 참여 업계 의견 수렴 개선 반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8일 서울 신촌비즈센터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화재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사업자 27개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충전시설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업계의 제안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기차 충전설비 신고제도 도입 △보험가입 의무화 등 법령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업무처리 방법 △충전 인프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충전설비 관련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안정적인 충전소 운영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나설다는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최근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충전설비도 잇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차주들이 마음놓고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8일 서울 신촌비즈센터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한전>

# 전북농협, 배 농가 과수화상병 방제 점검

### 전북농협·북전주농협 방목 방제 현황 배 생육동향 청취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과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28일 전주시 원동소재 배 농가를 방목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 현황 및 배 생육동향 등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수 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 가지, 줄기 등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는 국가검역병해충으로,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방목 시 과수원을 부분 또는 전체 폐원해야 한다.

농협은 현수막 설치, SMS 발송 등을 통해 과수농가 예방수칙 및 발생신고 방법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목구멍 △주거지 예찰 시행 △화상병 의심신고를 적극 안내 하며, 과수화상병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이우광 조합장은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등 농업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가에 예방수칙을 전파하고 추가 확산방지 및 사전예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과수화상병은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현장대응이 중요하다"며 "농협도 역량을 총동원해 지자체 및 농업기술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농진청, 국산 '아카시꿀' 명칭 올바르게

### 국산 아카시꿀 알리기 전개 아카시아꿀(X) 아카시꿀(O)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아카시꿀 명칭 바로잡기, 정확한 기능성 정보 제공, 꿀 등급제 소개 등 '국산 아카시꿀 바로 알리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카시아꿀'로 불리는 국산 아카시꿀은 '아카시나무(Robinia pseudoacacia)'에서 채밀한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아카시꿀'이다. 아카시나무는 아카시아와는 다른 식물이다.

국립국어원에서도 '아카시나무'를 표준어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도 아카시꿀로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은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되고 있는 베트남

산 아카시아꿀과 국산 아카시꿀이 혼동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정확한 용어 알리기에 나섰다.

아카시꿀은 국내 벌꿀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국산 꿀이다.

은은한 향과 맑은 색, 부드러운 단맛이 조화로운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효과적인 '아브시스산(abscisic acid)'이 다른 수입 꿀보다 월등히 많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산 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꿀 등급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꿀 등급제도는 수분, 탄소동위 원소비 등 8가지 항목 기준으로 1+등급, 1등급, 2등급을 판정에 구분한다.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등급과 정보부(큐알코드)를 통해 이력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NH농협은행 전북, '온가족이 함께하는 금융교육'

### 'Hug Farm 금융교육' 진행 게임 등 체험 금융기초 익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28일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Hug Farm 금융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금융교육이다.

금융교육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북본부 4층 청소년 금융교육체험관에 마련됐으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소통하며 금융의 기초 개념과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즐겁게 익히도록 구성됐다.

다. '허그 팜(Hug Farm)'이란 '포용하다(Hug)'와 '농촌(Farm)'의 합성어로 '일상생활에서 농촌을 가까이 하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은행원 체험 △핀테크 금융게임 △허그팜 농산물 구매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올바른 금융습관을 익혔다.

특히 금융교육에는 NH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 'N플러' 단원들도 함께하여 아이들의 활동을 돕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영태 기자

# 농촌진흥청 한우 200마리 첫 외출

### 평창 대관령 초지 첫 방목 10월 말까지 초지 생활

농촌진흥청은 29일 평창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초지에 한우 암소 200여 마리를 방목했다. 이번 방목은 임신하지 않았거나 젖을 떼 암소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이번에 방목한 한우는 이 중 일부로, 임신하지 않았거나 젖을 떼 암소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김영태 기자

보통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초지에서 생활하며 풀이 자라지 않는 늦가을 다시 축사로 돌아간다.

방목 한우는 약 5개월간 180헥타르 초지를 순환하며 사육될 예정이다.

센터는 자체 육종 기술을 바탕으로 한우 개량을 추진 중이며, 방목 사육은 축사 사육보다 수태율과 분만율이 각각 3.5%, 18.3% 높고, 사료비 절감 효과도 커 생산비 절감에 기여한다. /김영태 기자

#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팔복예술공장서 개막

## ‘Magic(마법)’ 주제 세계적인그림책작가 전시 등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를 만나고, 누구나 그림책을 즐기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도서전시회가 전북자치도 전주에서 29일 화려하게 막이 올랐다.

이날 전주시는 팔복예술공장에서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 문화축제인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하 그림책도서전) 개막식을 가졌다.

‘마법(Magic)’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도서전은 개막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한 달간 원화 전시가 이어지며, 6월 1일까지는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원화 전시에 참여한 사라 룬드베리와 키티 크라우더,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 작가인 백하나 작가 등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올해 주빈국으로 선정된 스웨덴의 대사관 관계자와 출판사 대표들도 초청돼 양국 간 그림책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 그림책도서전의 중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북마켓은 보림출판사와 세계절, 문학동네, 창비 등 국내 유수의 그림책 출판사 22개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6월 1일까지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광장에서 운영된다.

각 출판사 부스에서는 그림책 전시와 함께 △도서 10% 할인 판매 △작가 사인회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다.

또한 올해 도서전에서는 총 6회의 작가 강연과 8회의 그림책 체험 프로그램

도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서현 작가의 ‘초록의 마법’ ‘풀벌레그림책’ 강연을 비롯해 스웨덴의 대표 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과 초청 작가 키티 크라우더의 작품세계를 깊이 있게 조망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여기에 박병주 작가의 1인극 ‘마법의 방귀 파워 빵’, 드로잉 워크숍, 종이 인형극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도서전에서는 원화 전시회는 물론, ‘아트마켓’과 ‘시작-작가전’, ‘디픽투스 그림책 100선’ 등 주요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도서를 구매하면 스탬프를 모아 굿즈 뽑기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선물로 증정되는 굿즈에는 이수지 작가의 대표 이미지가 담겨 있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도서전은 스웨덴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국내 그림책의 가능성을 세계로 확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림책은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책을 넘어 콘텐츠 산업으로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전주가 그림책 창작과 유통, 전시가 어우러지는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29일까지 이어지는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원화 전시의 경우 팔복예술공장에서는 백하나 작가와 사라 룬드베리 작가의 전시가 진행된다.

완산도서관에서는 에바 린드스트롬 작가와 키티 크라우더 작가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정재근 기자



## 전북교육청, 금연 분위기 조성 ‘앞장’

### ‘흡연예방 금연실천의 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금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전북교육청은 29일 본청 2층 강당 및 야외 마당에서 ‘2025년 흡연예방 금연실천의 날’ 행사를 운영했다.

도교육청 직원 대상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금연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실천 캠페인이다.

(사)전북흡연예방교육포럼, 전북금연지원센터(원광대병원) 등이 함께 참여해 △직원대표 금연결심 선언 △흡연예방 전시 및 체험 △폐활

량 및 산소포화도 측정 △SNS 인증샷 포토존 △혈압·혈당·일산화탄소 측정 △전문 금연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금연 상담 부스와 체형존은 많은 직원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운영됐다. 금연을 희망한 직원 중 일부는 전북금연지원센터(원광대병원) 금연서비스에 등록, 앞으로 6개월간 전문적인 금연관리와 상담을 받게 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직원들이 함께 ‘핑크길(담배포조 줍기)’ 활동을 통해 교육청 주변을 정리하며 환경보호 의미까지 더했다.

/최성민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전북지역 ‘늦깎이·외국인 신입생’ 증가

## 학령인구 학생 비율 4년제 대학 전복 86.9%

학령인구 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대·전문대 신입생 구성에서 성인 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도 피해가 지 못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학령인구 학생은 감소하고, 성인과 유학생은 증가... 달라진 대학 신입생 구성과 대학의 대응 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지역별 대학 신입생 규모와 구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과 전국 전문·기능 대학 신입생 규모가 전반적인 감소 추세

가 두드러졌다. 전국 대학 신입생 수는 2016년 57만 5000명에서 2023년 50만 4000명으로 약 7만 1000명(12.3%) 감소했다. 이 중 4년제 대학은 같은 기간 1만 8000명(5.2%) 줄었고, 전문·기능대학은 5만 2000명(23.7%)이나 감소해 충격과 가 더 컸다.

전북 지역의 경우 4년제 대학은 2016년 대비 -13.1%로 감소 폭이 컸다. 이어 경남 -20.3%, 전남 -17.7%, 제주 -17.5%, 강원 -14.8%, 충북 -13.7% 등이 감소세를 보였다.

전문·기능대학은 전국 평균 감소치보다 조금 낮은 -23.9%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강원은 -43.4%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대전 -34.9%, 부산 -33.5%, 충북 -30.7%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각 대학은 신입생을 충원하기 위해 성인 학습자, 외국인 등 다양한 특성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4년제 대학은 2019년까지 4천명대였던 성인학습자가 2020년 6021명, 2021년 9863명으로 늘었고 이후 1만여명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5673명에서 2023년 7524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기능대학의 경우 성인학습자는 2016년 2만1119명에서 2023년 3만7407명으로 늘었고, 외국인 유학생은 712에서 3741명으로 증가했다.

4년제 대학 중 수도권, 울산, 대구, 충청권 대학은 입학정원의 90%를 학령인구 학생으로 충원했으나 전북은 86.9% 가량만 학령인구 학생으로 채워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았다. 전문·기능대학 또한 59.4% 가량만 학령인구 학생으로 채워 전국 하위권에 위치했다.

보고서는 “입학자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학 현장도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학생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교육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비전통적인 학생을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성인학습자에게는 비교적 긴 학습 공백기를 채울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등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학습·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대, 신입생 대상 전공탐색박람회 성황리

### 신입생 맞춤형 진로 탐색의 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교내 대운동장에서 ‘2025년 1학기 전공탐색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틀간 열린 박람회에는 신입생 등 5천여 명이 참가해 전공 선택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총 77개 학과(학부)가 참여해 자율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 각 부스에서는

교수진과 조교, 재학생 선배들이 직접 전공 소개, 학과 활동 안내, 진로 및 커리어 상담을 진행하며 신입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신입생은 “막연했던 전공에 대해 교수님과 선배들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며 진로까지 상담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의 대학생활과 진로 선택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 ‘새만금바다’ 세계 요트인 경기...6월 5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제10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오는 6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동안 부안군 격포항 일대에서 개최된다.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올해로 10회째로 전북을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스포츠 행사이다. 대회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태국, 필리핀 등 13개국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서해를 무대로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이어진다.

대회는 ‘인쇼어(INSHORE)’ 코스와 ‘오프쇼어(OFFSHORE)’ 코스로 나뉘어, 격포항을 출발해 위도 및 고군산군도 인근을 일주하는 스틸 넘치는 요트 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관람객들은 격포항 남측 방파제 관람석과 함께 관람정에 승선해 바다 위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전북자치도는 참가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양경찰,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 구조장비 비치, 구명조끼 착용, 구조정 해상 배치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병행한다. 여기에 사진촬영 이벤트,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



대행사를 함께 운영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어우러지는 해양문화 축제로 승화시킬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새만금 일대 해양레저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과 연계해 전북을 대한민국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는 첫해 날인 5일 격포항 요트 계류장을 개방해 1일차 경기 시작, 6일 오후 6시 격포항 특설무대 개막식이 진행, 8일 시상식과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대회가 마무리 된다.

/김영태 기자

# 에너지 절약 방법



## 왜 에너지를 절약 해야 할까요?

###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 지구온난화 :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

- 01 안쓰는 콘센트는 뽑아요
- 02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로 맞춰요
- 03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 해요



군산 어청도 낭만여행,  
올해는 더 특별하게 돌아온다!

군산시가 오는 6월 7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5년 어청도 낭만여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24년 처음 개최됐으며, 여객선 어청카페리호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군산 대표 섬 어청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다기오는 행사를 위해 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해양경찰서의 협조로 여객선 운항 일정 조정을 통해 어청도의 낮과 저녁 모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 블로그 홍보 지원을 통해 행사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시내에는 토크콘서트·선상 노을 포토타입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며, 여객선 운항 시 해양경찰 함정이 동행하여 선상 안전을 확보한 안전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섬에 도착한 뒤에는 어청도 먹거리, 어청도 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섬 걷기 여행, 사진 투어 등이 펼쳐진다.

/군산=지송길 기자

## ‘역사와 예술의 조우’

### 익산백제왕궁에서 문화의 향연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익산 백제왕궁(왕궁리유적)이 예술과 이야기가 흐르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한다.

익산시는 오는 31일 백제왕궁을 무대로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의 일환인 '2025 선율속으로'와 '세계유산에서의 답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융복합 문화 콘텐츠다. 익산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결합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오감으로 유산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클래식 해설 공연 '백제역사유적지구 선율속으로'는 룩스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팬텀싱어 출신 테너 최진호, 가수 써니힐 등이 출연해 유산의 의미를 품격있는 음악으로 풀어낸다.

이어지는 명사 초청 프로그램 '세계유산에서의 답소'는 영화 서울의 봄, 비트, 태양은 없다 등을 연출한 김성수 감독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김 감독은 배우 정우성과 영화적 우정, 로케이션과 정체성, 백제왕궁이 가진 공간성과 상징성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는 전통 악기인 것대와 비파 연주, 캘리그래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콘텐츠팩토리, 영상 제작 기초 교육 운영

군산콘텐츠팩토리(이하 '콘텐츠팩토리')가 군산 시민들이 직접 현재의 군산을 찍어보는 영상 강좌를 준비했다.

콘텐츠팩토리는 오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군산을 기록하다, 영상 제작 기초'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문 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군산시내를 직접 촬영하고 영상을 제작해 보는 교육으로, 촬영이나 편집에 관심 있는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영상촬영 기초 이론', '촬영실습', '영상 편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참가 신청은 6월 2일부터 16일까지 군산 시청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누리집을 통해 QR 부호(코드)로 접수하면 되며, 교육 참가 인원은 10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김형욱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지역을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군산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푸드테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내년까지 완공

식품산업 수도 익산시가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이다. 최근 대체식품, 식품 자동화, 스마트 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기술 개발과 전문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반시설 구축 등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조성 중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최초 선정된 사업으로, 대체식품 핵심기술 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위한 실증 공간으로 운영된다.

시는 여기에 더해 전문가 중심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정책위원회를 운영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감도

<사진=익산시>

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푸드테크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 기술실증 사업을 통해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K-소스와 대체육, 음료, 포장 등 분야별 실증으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동화와 제조품질 향상 등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한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고,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푸드테크 산업법에 대비해 시장 선도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은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도시로, 푸드테크 산업의 최적지"라며 "매년 30%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지역 농식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전환해 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이학수 정읍시장,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

## “미래 위한 시민 참여 당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이학수 정읍시장이 수성동 공동리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시장은 투표를 마친 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투표는 대한민국과 정읍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시민 모두가 참여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와 자신의 투표 장소는 오는 6월 3일까지 시청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관내 23개 사전투표소를 포함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관내 45개 본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 조촌동 사전투표소서 투표

## “민주주의는 참여로 완성된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수자 여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강 시장과 박 여사는 군산학생교육문화관에 설치된 조촌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바쁜 일정으로 본 투표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를 통해 꼭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참여로 완성된다"



라며 "시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지적재조사로 경계 분쟁 해소

## 시민 재산권 보호 박차

정읍시가 디지털 지적 전환과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내며 시민 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2025년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가5·6지구와 경계결정 심의와 함께 수성2·4지구·송산지구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기반의 기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실제 현황

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데,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토지의 정형화와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도로에 접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맹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행정 과정"이라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시가지3지구와 연지5지구 1633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 익산시 열리는 펜싱 대격돌

###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회

대한민국 정상급 펜싱 선수들이 익산에서 대극마크를 향한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익산시는 30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익산시 실내체육관과 반다비체육센터에서 '2025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개최된다고 29일 밝혔다.

대한펜싱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펜싱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녀 사브르와 에페, 플뢰레 등 펜싱 전 종목의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중요한 자리다.

전국 각지에서 선수와 임원 등

1,500여 명이 참가해 자존심을 건진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종목별 일정은 △5월 30~31일 남·녀 사브르 △6월 1~2일 남·녀 에페 △6월 4~5일 남·녀 플뢰레 순으로 치러진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은 경기가 중단된다.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도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남자 에페에는 권영준과 정병찬, 양윤진, 김중준, 김찬우 선수가, 여자 사브르에는 최신희와 조예원, 최수빈, 최지영 선수가 출전해 실력을 선보인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2025년 위기가구 상세주소 직권 부여

### 총 71가구... 주소사각지대 해소

군산시가 2025년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세대 건물 내 동·층·호 주소가 없어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 편의 향상은 물론 복지안전망 확보 및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상 동·층·호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으로 소유자·임차인의 신

칭으로 부여된다. 만약 상세주소가 없다면,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세금고지서, 예비군 등의 교육 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 채납, 압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올해 총 71가구 세대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225가구 세대에 부여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정읍아산병원·사회복지관과 '맞손'

###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정읍시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구를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손잡았다.

시는 지난 28일 정읍사회복지관, 정읍아산병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연속적인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단기적 의료지원에 그치지 않고 퇴원 이후까지 지원을 이어가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환자 중심 케어플랜 수립 △보건의료·복지 연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퇴원환자 공

동 사례관리 △관련사업 자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입원 해소는 물론, 감염병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관일 정읍사회복지관 관장은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퇴원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아산병원 관계자도 "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계가 진정한 치료의 완성이라 생각한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 기업이 찾는 익산 쌀, 맞춤형 생산단지 본격 가동

### C·분족등에 4만여 톤공급

익산시가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에서 본격적인 모내기 준비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의 모내기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올해 조성된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달하는 4,150ha 규모다.

시는 맞춤형 생산단지에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C와 같은 대기업에 고품질의 쌀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나 이상 고온 등 지역 농가의 피

해가 많았던 만큼, 조기 이앙을 자제하고 평년보다 1~2주 가량 늦게 모내기를 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적절한 모내기 시기와 포기당 벼 수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병해충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방제 조치해 품질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철저한 품질관리를 생산된 익산 쌀은 △CI 햅쌀 △분족과 본도시락 등 분야에프 제품 △농협식품 △수도권 학교급식 등 다양한 곳으로 공급되며 익산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는 4만여 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김제시, 복지위기가구 지원 '우수'

전북 유일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 지자체 장관 표창 수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대상자 관리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2025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우수 지자체 표창'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겨울철 기간 동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노력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김제가 유일하게 수상했다.

시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19개 읍면동과 협업체계 계획을 수립했으며 적극적인 행정을 기반으로 사례 관리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해 수요에 맞는 서비스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물품 지원을 통해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썼다.



김제시는 '2024~2025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우수 지자체 표창'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제시>

또한 공공·민간 서비스 약 2,578건을 연계, 겨울철 위기가구 세대 약 1,746가구를 직접 방문 및 상담을 진행했으며,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중장년 세대에 도시락 지원, 관내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진행하는 복지공동체를 통해 약 900건의 소규모 집수리 등을 시행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에서 김제시가 유일하게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에 많은 책임감과 감사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겨울철 뿐만 아니라 항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는 김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상반기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양식장 관리선 사용승인 유효기간 제한 폐지 등 6건

부안군은 지난 27일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기업의 부담과 군민 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됐다.

최종 심사 결과 해양수산과 김태욱 주

무관의 '양식장 관리선 사용승인 유효기간 제한 폐지'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또 우수상은 위도면 허윤석 주무관의 '도서지역 수의계약 추정가격 완화'·민원 과 손유미 주무관의 '빈집 정비 건축물해체 철거 신고 대상 현실화가, 장려상은 자치행정담당관 최창열 주무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기간 통합 운영'·농촌활력과 유지영 주무관의 '도서지역 빈집 재생·활용 시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 근거 마련'·농업정책과 김종열 주무관의 '스마트팜 운영 전력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농사용 전기 범위 확대가 차지했다.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자치법규 개선을 테마로 한 경진대회를 개최해 규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화영 부안군 규제개혁위원장은 "행정의 불합리로 불편을 겪는 군민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규제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며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풍수해 대비 재난훈련

청송마을 침수 가상 소방서 등 2백여명 합동 훈련

고창군은 지난 28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020년과 2023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025년 안전한국훈련은 풍수해 대비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집중호우로 산림저수지 인근의 갈곡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된 인근 청

송마을이 침수되는 상황을 가정해 고창소방서 등 6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중 재난안전대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 발생 현장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재난 상황 발생 초기대응부터 복구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갑작적인 범람으로 인해 침수된 청송마을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피와 익수자 구조, 실종자 수색, 환자 발생

시 이송 체계에 대한 연습 등을 실전과 같이 진행했다.

또한, 산림팀 종합복지관에 마련한 임시 대피소에서는 군민들에게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역량을 향상해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태풍 등 풍수해 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

방치 화단 꽃·나무 식재 'GGG 캠페인' 1회차 활동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29일, 요촌동 일대(구산사거리~지평선문화축제발전소)에서 자원봉사자들과 'GGG(지구를 지키는 지평선) 캠페인' 1회차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2025 김제시자원봉사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자봉회 3기'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도심 속 방치된 화단에 꽃과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봉사자들은 시 도시과와 협의해 선정된 요촌동 일대 화단 13개에 상록수 및 초화류 등 다양한 식물을 식재해, 방치된 도시 공간을 탄소흡수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



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도시 곳곳에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나 꽃을 식재하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손쉬운 면에서도 효과적인 실천이며 도시 미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와 함께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GG 캠페인'은 총 11회차 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심 화단 식재 외에도 관내 경로당과 유관기관을 방문해 친환경 비누 제작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 친환경 생활문화를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제=은봉기 기자

# 김제시, 뮤지컬 '정글라이프' 6월 공연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 선정 1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정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동물과 등장인물의 성격을 결합시켜 각자 다른 개성을 지닌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낸 뮤지컬 '정글라이프'가 오는 6월 13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작품이다.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돼 정글 같은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직장인들의 오피스 라이프를 리얼하게 풀어낸 공연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행복과 설렘이 찾아올 거라는 작은 응원을 보내며 많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빈틈없



는 7명의 배우들과 함께하며,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능청스러운 연기력으로 공연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배우들이 각자 다른 개성을 지닌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낸 뮤지컬계의 미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6월 4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은봉기 기자

#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행사 장애인 경제적·사회적 자립 마련

고창군이 지난 28일 고창군청 광장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기 위한 판매행사를 열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자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사업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완주군 희망발전소1호점 등 도내 3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해 사무용 문구류, 김치반, 종이가방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고창군청 각 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고 다양한 제품을 둘러보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판매행사가 장애인의 자립 마련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행사 추진에 힘써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복지 위기가구 3845세대 일제 조사

6월 2~23일 생활실태 등 확인 민간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창군이 복지 위기가구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2~23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중지가구 3845세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종합행정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가구별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상담한 뒤 적절한 공적급여 신청을 돕고, 민간지원과의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154명과 복지보안관 79명이 참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수시 홍보활동을 펼친다.

기존 수급자들에게는 소득, 부양의무자, 차량 기준 등 수급 요건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급여 중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제시 투자유치과 일손 부족 포도 농가 봉사 활동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지난 29일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용지면 봉의리에 있는 포도 농가를 찾아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작업 중 하나인 순치기 및 결손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이 작업은 포도의 통풍을 좋게 하고 영양분 분산을 줄여 당도 높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으로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정성을 다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발생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참여한 직원들은 정성껏 작업에 임해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농촌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정효근 투자유치과장은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농촌의 현실을 더 깊이 체감할 수 있었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 부안읍 지사협 '프리모 카페' 착한 가게 선정

부안군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한동일)는 지난 28일 프리모 카페를 제77호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관 전담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순 프리모 카페 대표와 김정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한동일 부안읍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 실천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뜻을 내뼐다.

착한 가게는 소상공인이 매출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해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참여형 나눔 캠페인이다.

김명순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 가게 캠페인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 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추진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보건소, 세계 금연의 날 맞이 담배 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부안군보건소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부안초등학교에서 등굣길 흡연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흡연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청소년기 조기 흡연 진입을 차단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재학생으로 구성된 금연 도우미 10명과 함께 현수막 및 손팻말(피켓)을 활용해 등굣길 학생들에게 금연 메시지를 전달하고 홍보지 배부, 금연서약 등 흡연과 간접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부안군보건소는 등굣길 캠페인 이외에도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 전북금연지원센터 연계 금연 건강교실 운영 등 지역 사회 다양한 곳에서 흡연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연중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부안군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부안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 농협 고창군지부-흥덕농협, 돌봄 농가 환경개선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흥덕농협(조합장 백영중)은 지난 29일 성내면 돌봄 대상 농가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NH농협 고창군지부와 흥덕농협의 공동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돌봄 대상 농가를 찾아 도배·장판 교체를 지원했으며, 농협인행복콜센터의 상담과 NH농촌연장봉사단의 현장확인을 통해 진행됐

다. 백영중 조합장은 "고령 조합원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령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에 귀기울이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정 지부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완주, 청년·문화 모이는 산업거점 '첫발'

##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 출범식 복합문화공간 등 사업 공개 'W260+' 브랜드 내달 발대

문화선도산업단지에 선정된 완주군이 서울 게이트타워에서 열린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출범식에 참여해 탄탄한 출발을 알렸다.

29일 열린 출범식에는 완주군을 포함해 공모에 선정된 구미, 창원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들이 참석했다.

완주군은 '즐겁게 일하고 성장하는 문화융합 선도산단 1번지' 비전 선포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들이 참석했다.

완주군은 '즐겁게 일하고 성장하는 문화융합 선도산단 1번지' 비전 선포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들이 참석했다.



완주군이 29일 서울 게이트타워에서 열린 2025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출범식에 참여했다. <사진=완주군>

축제와 공예·음악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사업을 설명했다. 완주군은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인 청년이 몰려오는 활력 넘치는 산단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양한 문화융합 거버넌스를 추가 구성한다. 한편 완주 문화선도산단 <W260+> 발대식이 오는 6월 9일 완주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W260+>는 완주형 산업문화 생태계의 정체성을 담은 전략 브랜드로 매달 평균 260명씩 증가하고 있는 완주의 인구 흐름에서 착안한 명칭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관광협회의 리플러스가 주최하는 감성 문화예술 프로그램 '별명달명'이 30일 오후 8시, 남원시 달빛정원 피오리움에서 열린다. <사진=남원시>

## 남원 달빛정원 '별·달·예술 어우러진 밤'

### 남원관광협의회 리플러스 야간관광 '별명달명' 개최

남원시관광협의회 리플러스가 주최하는 감성 문화예술 프로그램 '별명달명'이 오늘 오후 8시, 남원 달빛정원 피오리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자연 속에서 별을 보고(별명), 달빛을 느끼며(달명), 예술과 함께하는 감성 힐링 프로그램으로, 남원의 야간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의 메인 공연으로는 핸드팬 아티스트 사맛디가 출연한다. 사맛디는 독창적인 연주 스타일과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에게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이와 함께, 피오리움 공간 내에서는 빛과 영상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 전시가 진행된다. 전시는 선착순 20명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시 관람 외에도 '별명달명'은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이번 '별명달명'은 남원의 자연과 예술을 연결하는 남원의 대표 야간 문화 콘텐츠로서,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과 몰입의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매주 금요일 정기 운영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선정

##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 농악 생활화·학교 교육 연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5년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가 도내 전통 농악을 보존·계승하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농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각 시군별로 1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남원시는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가 전승학교로 선정돼, 청소년 중심의 농악 교육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전승학교는 도내 총 7개 시·군에서 각각 1교씩 지정됐다.

남원시는 판소리와 농악, 춘향제 등 전통예술의 본고장으로서, 깊은 역사성과 문화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사회 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예술교육 여건 또한 우수한 편이다. 특히 남원농악은 남도농악의 대표 유형으로, 특유의 구성된 가락과 공동체적 전통이 잘 살아 있어 교육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크다. 남원시는 전승학교인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농악 교육과 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농악 기초이론, 악기 연주, 기본 무동 등 실기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정기 공연과 연계한 체험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학생 농악동아리 육성, 지역축제와의 공연 연계 등 학교와 지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농악이 학교 일과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일상문화로 자리잡도록 힘쓰고 있다. 이번 전승학교 운영은 남원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는 물론, 학생들에게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구곡순담 장수벨트'로 고령사회 공동 대응

## 순창 등 4개 군, 1차 협의회 장수복지·문화 협력 강화

순창군은 지난 28일 쉐라톤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1차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고령사회 대응과 장수복지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김순호 구례군수, 조성래 곡성군수, 정철원 담양군수 등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모두 직접 참석해 회의의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공유하며, 각 지자체의 노하우와 정책 방향을 교류하고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는 지난 2003년 협약 체결을 통해 결성된 지자체 간 협력체로, 구례군(구), 곡성군(곡), 순창군(순), 담양군(담) 네 곳이 참여해 윤번제로 회장군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28일 쉐라톤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제1차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회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수 지역 간 연대의 상징으로,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문화 교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 주요 공동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함께,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 4월 성황리에 마무리된 제14회 구곡순담 100세잔치와 제2회 장수노인 파크골프·게이트볼 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고령층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유도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힐링 노후 문화체험, 치매 조기예측 검사 도입 등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순창=박지현 기자

황리에 마무리된 제14회 구곡순담 100세잔치와 제2회 장수노인 파크골프·게이트볼 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고령층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유도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힐링 노후 문화체험, 치매 조기예측 검사 도입 등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순창=박지현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 사전투표 "민주주의 기본"

### 사전투표 첫 날 29일 봉동읍 사전투표소서

유희태 완주군수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8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유 군수는 완주군청 국장급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완주군 내 설치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일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어 훨씬 편리하다. 완주군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앞장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투표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 행사로 완주군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모든 군민께서 사전 투표 기간 동안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는 "투표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 행사로 완주군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모든 군민께서 사전 투표 기간 동안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순창군, 민방위 집합·사이버 교육 실시

### 1~2년차 집합·3년차 온라인 40일간 사이버 교육 병행

순창군은 민방위 대원들의 비상사태 대응 능력과 생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도 민방위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 제도의 이해와 더불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됐으며,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집합 교육은 오는 6월 30일 오후 9시부터 순창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1~2년 차 민방위 대원, 기술지원대원, 민방위 대장 등 총 252명이며, 총 4시간 동안 ▲민방위 제도 이해 ▲응급 처치 ▲화생방 대비 ▲화재 예방과 대처 등 4개 분야의 필수 교육이 실시된다. 아울러, 사이버 교육은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대상은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603명이다. 교육은 디지털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이번 교육은 민방위 제도의 이해와 더불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됐으며,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집합 교육은 오는 6월 30일 오후 9시부터 순창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1~2년 차 민방위 대원, 기술지원대원, 민방위 대장 등 총 252명이며, 총 4시간 동안 ▲민방위 제도 이해 ▲응급 처치 ▲화생방 대비 ▲화재 예방과 대처 등 4개 분야의 필수 교육이 실시된다. 아울러, 사이버 교육은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대상은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603명이다. 교육은 디지털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우기철 대비 재해복구 현장 점검

### 장선천, 괴목동촌, 옥배소하천 등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28일 운주면에 위치한 장선천, 괴목동촌 재해복구 사업장과 옥배소하천 정비사업장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한 상황 점검의 일환으로 유 군수는 재해복구사업의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마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 군수는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복구 작업 현황을 점검하며, 특히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완주군은 총 1,1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17건의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건을 완료하여 복구율은 69%를 기록하고 있다. 6월 내로 성북천과 장선천, 괴목동촌 재해복구사업을 발주해 우기철 대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가 지난 28일 운주면에 위치한 장선천, 괴목동촌 재해복구 사업장과 옥배소하천 정비사업장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한 상황 점검의 일환으로 유 군수는 재해복구사업의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마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 군수는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복구 작업 현황을 점검하며, 특히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완주군은 총 1,1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17건의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건을 완료하여 복구율은 69%를 기록하고 있다. 6월 내로 성북천과 장선천, 괴목동촌 재해복구사업을 발주해 우기철 대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선정 'K-뷰티' 키운다

## 중기부 로컬창업보육센터사업 지리산권뷰티창업거점 육성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로컬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목표는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 강점을 활용한 창업보육센터의 보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지원해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및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7천만원 규모이다. 사업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남원 지리산권 기반 뷰티산업 선도를 비전으로 제시한다. 그린바이오 시장에서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며 ▲Beauty-Boot Camp(사업과 기술교육) ▲Brand-Build Up(신규 리뉴얼 브랜드) ▲P-Launch(제품생산 지원) ▲Go-to-Market(온라인 마케팅 지원) ▲Pitch-Ready(IR 역량강화) 과정 등으로 운영해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지속적으로 연계,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한 경제 위축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 순창군, 여성직업교육훈련 '행정실무전문가 양성' 수료식

순창군은 지난 29일 여성회관에서 여성직업교육훈련 '행정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4월 16일 개강해 총 28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재무설계, 직업윤리 교육은 물론, 한글·엑셀 등 컴퓨터 기초부터 실무 활용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뤘다. 특히 기업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중심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생 전원은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자격시험과 ITQ(한글, 엑셀) 자격시험에 응시했으며, 자격증 취득 여부는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교육생은 "한글과 엑셀은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 실질적인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격증도 취득하고, 나아가 취업까지 연결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추어, 한식 브랜드 협업 리파인 '추어 한우곱창전골' 선택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사)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하 남원추어사업단)은 프리미엄 한식 다이닝 펍 브랜드 '리파인(REFINE)'과 협업해, 남원추어를 현대적 미식으로 재해석한 '남원추어 한우곱창전골' 메뉴를 지난 2월 공식 런칭하였으며, 현재 전국 11개 리파인 매장에서 성황리에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메뉴는 남원추어사업단이 추어식품 대중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추어페이스트'를 활용한 비법소스가 핵심으로 추어 특유의 깊은 풍미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비린 맛 없이 깔끔한 맛을 구현해, 기존 추어 요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원추어 한우곱창전골'은 남원산 추어페이스트로 우려낸 진한 육수에 국산 한우곱창, 특제 양념과 신선한 채소가 어우러져 깊고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한다. 리파인의 전통주와 어우러지는 완성도 높은 페어링 메뉴로서, K-푸드의 미식 가치를 한층 끌어올렸다.

리파인은 한식 파인다이닝을 일상 속에서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브랜드로, 전통주와 퓨전 한식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콘셉트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22년 법인 설립 이후 전국에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한식 다이닝 펍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남원추어사업단 관계자는 "추어의 고급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해온 결과물이 이번 전골 메뉴에 녹아 있다"고 전했다.

해당 메뉴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지역의 리파인 매장에서 제공 중이며, 지속적인 수요 분석을 통해 전국 확대도 검토 중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여름 피서객 맞이 '준비 끝'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고산자연휴양림 점검을 마쳤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달 초부터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휴양림 내 화단에 달맞이꽃을 식재했고, 최근에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계곡 바닥의 자갈과 이끼를 제거했다.

또한, 계곡 진입로 등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정자와 평상 보수와 안내판을 교체하는 등 편의시설도 정비했다.

이희수 이사장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고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장수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청렴다짐계시판' 운영

장수군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다짐계시판'을 운영하며 공직자 스스로 실천을 약속하는 자율적 청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청사 본관 2층에 청렴다짐계시판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실천 서약문 △부서별 청렴 릴레이 사진 △청렴다짐 문구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 개인의 다짐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및 일상 속 청렴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또한 이를 통해 장수군 공직자들은 매일 출근 시 청렴 메시지를 마주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동료 간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내부 청렴의식 강화와 함께 부패방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청렴은 제도보다 문화가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청렴다짐계시판은 강요가 아닌 자발성에서 시작되는 만큼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의 책임감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장수군-무진장축협, 가축분뇨 수거 협력체계 구축 등 협약

장수군은 관내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축분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무진장축산협동조합(조합장 송제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수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유기질 퇴비의 활용을 확대해 축산 환경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은 주민의례를 시작으로 협약 내용 설명, 양해각서 서명,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약에는 △장수군 축분 위탁처리 확대 △판의 판매 및 해외 수출을 통한 퇴비 유통망 확대 △경종농가에 유기질 퇴비 공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축산농가-무진장축협-장수군 간 가축분뇨 수거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장수군은 축산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수군의 친환경 축산 모델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오수의견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친화 도시 전략 논의

임실군이 지난 27일 반려동물 산업의 핵심 거점인 오수반려누리 세미나실에서 '2025년 임실군 반려동물 산업 육성지원사업 전문가협의회(2분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임실군 애견치즈와 애견운영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펫산업팀,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임재웅 교수 등 민·관·학 전문가 14명이 참석해, 2025년 1분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분기 실행계획 및 현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인근에는 반려동물 특화단지인 오수 제2농공단지, 반려동물 전용 캠핑장, 그리고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오수의견관광지 등 다양한 인프라가 위치하고 있어, 이들 기반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산업·관광 융합 모델에 대한 전략적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심민 군수는 "오수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산업과 관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학이 협력해 임실군이 명성 있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장안산 억새숲 복원

### 산림복원사업 선정 총사업비 20억 투입 억새 20만본 식재

장수군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6년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장안산 억새숲에 억새 20만본을 식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안산은 해발 1,237m로 백두대간에서 떨어져서 우뚝 솟은 금남호남정맥의 종산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산림생태계를 자랑한다. 이번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은 생태적 가치가 높지만 훼손이 심한 산림을 복원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산지 적정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

장안산 억새숲은 자연경관, 생물다양성, 관광자원 등의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사업지로 확정됐으며 2026년부터 3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0



장수군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6년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장안산 억새숲에 억새 20만본을 식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장수군>

억원을 투입해 장안산 억새산림을 복원할 계획이다.

주요 복원 계획은 △역새재생지 복원 △훼손지 정비 식생복구 등이며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관을 이루던 억새군락을 되살리고 이를 생태관광자원으로 연계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장안산 억새숲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 선정

### 백패킹-문화콘텐츠 연계 생활인구 유입 기대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도내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확대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무주군은 'Better'리 in 자연

특별시 무주'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모델을 제시해 호평받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Better'리 in 자연특별시 무주'는 무주다운 생태·전통 자원과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골자로 한다.

특히 6개 읍면별 차별화된 트레킹 코스를 기반으로 한 '백패킹 페스티벌'과 낙화놀이·태권도 등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아웃도어 페스티벌'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무주의 자연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직면해 있지만 앞으로도 무주다운 모습으로, 무주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치즈테마파크 2백만송이 장미꽃 활짝

### 6천평 150여종 2만2천여주 장미만개 이번 주말 절정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장미원에 장미꽃이 만개, 유럽형 건물들과 어우러지며 동화 속 한 폭의 그림 같은 경관을 선사하고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은 사계절 장미원 3000여평과 유럽형 장미원 3300여평에 150여종 2만2천여주의 장미를 식재, 대규모 장미정원을 조성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들 형형색색의 장미꽃이 절정을 이루며 화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올해는 이번 주부터 본격 개화를 시작해, 6월 중순까지 화려한 장미꽃이 만개해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장미 개화기에 맞춰 장미원 전반의 환경 정비와 경관 개선 작업을 진행해 관광객에게 더 나은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지난 3월에는 생육 불량 및 고사목 12개 품종, 960주의 장미를 교체·식재하고, 일부 배수 불량 구간에는 유공관을 설치하는 등 토양개량 작업을 마쳤다.

또한, 유럽형 장미원 내 관광객들의 심터를 보강하기 위해 퍼즐러 5개, 트릴리스 30개, 벤치 43개를 설치하고, 경관 수목 29주를 추가로 식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심민 군수는 "5월 말이 되면서 장미원에 장미꽃이 활짝 피어나 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며 "치즈테마파크에서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함께 거닐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본격 착수

### 아웃도어-액티비티 투어 등 계절별 4종7개 코스 운영

진안군이 오는 2026~2027년 '진안방문의 해'를 앞두고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5월부터 '진안고원 명품 패키지 특수목적 관광 코스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진안군이 보유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계절별로 특화된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기획해 총 4종 7개 코스로 운영한다. 주요 테마는 스카우터-액티비티 투어 △로컬 투어 △월니스 투어 △미식 투어

등으로,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진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하고, 지역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진안군은 이번 사업을 '진안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지역 관광의 전환점으로 삼고, 이후에는 'MY진한~진안여행'이라는 통합 관광 브랜드를 정립해 개별여행객 중심의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패키지 구성은 계절별 테마에 따라 다양하다. 봄·여름에는 진안고원길과 야생화 트레킹, 계곡 하이킹 등 액티비티 중심의 아웃도어 투어가 운영되며, 가을에는 국악 와인 열차 탐승과 함께 하는 '촌스런 마을 여행', 산골 낭만 캠

핑, 백패킹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로컬 투어가 펼쳐진다. 여기에 진안고원치유 숲 체험, 마이산 및 백운동 계곡 단풍길 감상, 노포 맛집 탐방과 재래시장 체험 등이 어우러진 월니스-미식 투어가 더해져 진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패키지 관광은 '진안방문의 해'를 앞두고 지역 관광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MY진한-진안여행' 브랜드를 중심으로, 진안만의 깊이 있는 콘텐츠와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 최훈식 장수군수, 고3 학생 투표 독려 캠페인

"생애 첫 투표, 기억되길"

장수군은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맞아 장수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리고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훈식 군수는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생애 첫 투표로 시작하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최 군수는 "생애 첫 투표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민주주의의 첫걸음이자 성인의 책임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순간"이라며 "고3 유권자 여러분의 생애 첫 투표가 자랑스럽고 의미있는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추경 5,256억여원 확정

#### 본예산대비 10.8% 증가 민생지원주민 편의증진중점

무주군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본예산 대비 510억여 원 증가(10.8%)한 총 5,256억여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지원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무주사랑 상품권 운

영 9억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및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등 보건·복지 분야 사업(64건·1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억 원 △주민편익지원 43억 원 △무주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 활성화 등 문화·관광 분야 사업(66건·118억 원) 등이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는 물론, 부문별 필수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동력이 충전된 만큼 행정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 무주군-CJ푸드빌, 여름딸기 유통 협업

농가 경쟁력·경제 활성화 기대

무주군은 지난 29일 CJ푸드빌과 여름딸기 유통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안에는 △무주 여름딸기 홍보 및 유통활성화 △고품질 생산 공급체계 구축 △농산물 연계형 봉사활동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명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으며, CJ푸드빌은 당도 높은 고품질 여름딸기를 제과 음식 등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전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여름딸기가 반딧불 농산물의 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생산과 품질 관리,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고원 스마트팜' 본격 착수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고원 스마트팜 기본 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와 용역사, 농업 관련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고원 스마트팜은 지역 농업의 혁신과 더불어 청년농업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진안에 정착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는 마령면 평지리 일원 6.9ha 규모로 인력양성 스마트팜, 과채류·엽채류 재배단지, 부지분양형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외부 청년농업인을 유치해 지역 활력을 높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진안군은 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설계를 최종 보완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남원 금동 참사랑 유치원 원아들, 우유팩으로 환경 보호 실천

남원시 금동 참사랑 유치원 원아들이 남원시 자원재활용 교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금동행 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환경 보호에 앞장섰다.

이날 원아들과 교사들은 평소 마신 우유팩을 깨끗이 씻고 모아온 300ml 우유팩 2,610개(약 87kg)를 전달해 화장지 87개로 교환했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이 자원 순환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무주 무풍면지사협, 돌봄 가족에 격려 물품 전달

무주군 무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족 돌봄으로 지친 돌봄 가족 20가구에 2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이불 세트)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랜 시간 동안 질병이나 치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돌보노라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겪고 있는 돌봄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한 주민은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누군가 나의 수고를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라며 "말없이 참여했던 시간을 다 보상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독거 노인에 효효호키트 전달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해봉스님)은 29일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할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0명의 어르신들에게 "효효호 키트" 전달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총 750만원 상당(1인당 15만원)의 영양제와 식료품 등이 담긴 키트를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계열사, 김제시에 1,532만 원 기탁

임직원 154명 자발적으로 모금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9일 소재 축협, 전북농협 축산경제 계열사 등 4개 기관이 고향사랑기부금 1,532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 전북농협 축산경제 계열사인 농협목우촌 김제 육가공 공장 나훈준 공장장, 농협 사료 전북지사 박진만 지사장, 도드람 김제 FMC 양돈농협 이재실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김제 소재 축산 관련 기관 임직원 154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532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김제시에 전달한 것으로, 이웃사랑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은 "김제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뜻을 모아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되었다. 기부금이 김제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약사회, 근농인재육성장학금 500만 원 기탁

"의지있는 학생들에 도움되길"

부안군 약사회는 지난 28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찾아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부안군 약사회는 관내 30개소 약국 커뮤니티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생명사랑약국'업무를 통해 군민의 정신 건강을 돌보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 환원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22년 500만원 기부에 이어 근농인재육성재단을 찾아 준 부

안군 약사회 김재성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학업의 기회를 갖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부안군 약사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학생들을 응원하겠다"며 관내 소외 계층 및 장학혜택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권익현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기부해주신 장학금을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학금 기탁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세움종합건설 김종원 대표, 정읍시에 성금 전달

정읍시에서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수행 중인 (주)세움종합건설(대표 김종원)이 지난 28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김종원 대표는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준 정읍시와, 장기간의 공사에도 불구하고 너른 마음으로 협조해주신 감곡면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임직원 일동이 한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이학수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시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보람 있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완주 솔테마박물관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숲길·맨발걷기 등 진행

완주군 대한민국솔테마박물관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JK웰니스센터(전주거전대학교 산림치유과 학교기업)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흙물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년기 신체 활동을 증진 시키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6회째 진행됐으며, 숲길·맨발걷기 등 숲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노인의 행복감

을 증진시키고 있다. 차 마사지와 명상, 나무스트레칭, 손발 미니댄스, 아로마 발마사지, 요가 등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힐링 활동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고 있다.

서진순 완주군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 푸드트럭 '좋은 하루', 6년째 이어진 따뜻한 장학금

정읍의 거리에서 따뜻한 먹거리와 함께 희망을 전해온 푸드트럭 카페 '좋은 하루'의 김성길 대표가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소중함 나눔을 실천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29일 김성길 대표가 정읍시청을 방문해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김 대표가 정읍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 온 나눔 활동의 일환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그의 장학금 기부는 올해로 벌써 여섯 번째를 맞이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전북 학원연합회, 정읍 산불 이재민에 생필품 기탁

정읍시 소성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연합회가 나눔에 앞장섰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연합회는 29일, 427만 5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이 생필품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원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손경호 회장은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이번 기탁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결혼

- ▶유원빈 군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윤성희 씨 아들)
- ▶지다운 양 (지원호·임경희 씨 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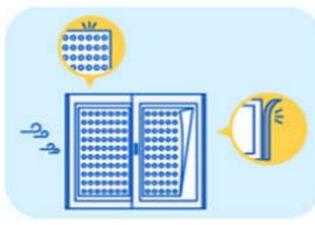
일시 : 5월31일(토) 오후 2시30분  
장소 : 경북 구미시 구미 BW웨딩 4층 보네르홀  
연락처 : 010-8939-5475(유의식)

일상 속(가정, 직장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안 쓰는 방 전등끄기



복벽이나 문풍지로 따뜻한 집 만들기



텀블러나 개인컵을 사용해요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요

〈一事一言〉



윤석열의 몰락, 언론의 '공범 책임'을 묻는다

김관춘  
논설위원

6.3 조기 대선을 10여 일 앞둔 지난 25일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여론의 등쌀에 밀려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러한 결단의 표면적 이유는 지지율 정체와 김문수 후보에 대한 민심의 냉담함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현실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정치적 상징이 아니며, 오히려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한정진서 피고자의 얼굴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파괴적 행보를 걷기까지의 모든 과정에는 조용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공범이 있었다. 바로 언론이다.

윤석열은 정치의 문외한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으로까지 승승장구했다. 그 과정은 실력보다는 상징, 명분보다는 이미지가 앞선 여론 조작의 연속이었다. 그의 거침없는 언행, 권위주의적 태도, 비합리적 정책 결정들에 대해 언론은 '야성의 귀환'이라며 박수를 보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의 독선과 무능은 "검찰 개혁 저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허울로 포장되었다. 그가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이끌다 끝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획책한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지만, 진정한 배신은 그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했던 언론이 그 행보를 가능케 했다는 데 있다. 언론은 그의 위

험한 성향과 발언에 날을 세우기 커녕, 오히려 그를 조망하고 띄우며 대중에게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허위로 포장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그의 파면이 확정된 지금에서야 언론들이 일제히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 그를 '무책임하고 위험한 인물'이라 몰아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도 한참 동안 '내란수괴'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던 언론이, 이제는 마치 누구보다 앞서서 정의의 심판을 요구하는 척 행동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은 권력의 견제자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의 시대, 언론은 견제자는커녕 충실한 부역자이자 선전 도구가 되었다. 일부 언론은 마치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도 된 듯, 윤석열을 비판 없이 신격화하고 그의 정책과 발언을 포장하는데 골몰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국감장에서 책상을 치며 검찰의 신성함을 운운할 때,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표현으로 그의 폭주를 미화한 것도 언론이었다. 권력이 무너지면 언론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언론은 단순히 제 역할을 못 한 것이 아니다. 언론은 윤석열이라는 위험한 인물을 쫓가마에 태워 권력의 최정점에 오르는 데 앞장섰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그의 폭주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내란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가는 데에는 그의 개인적 성향만이 아니라, 비판과 검증을 포기한 언론의 태도가 결정적이었다.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의 탈당을 분석하거나 그의 정치적 생명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 자신들 어떤 몫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냉정히 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극우 보수언론이 '윤석열의 정치적 결단'을 운운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모습은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모른 채 과거의 미몽에서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의 책임은 무겁다. 민주주의는 감시와 비판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시대의 언론은 진실보다는 친분, 검증보다는 편향, 공익보다는 클릭 수를 쫓았다. 그리고 그 대가는 국가의 파국, 국민의 분열, 민주주의의 후퇴였다.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언론은 과연 반성하고 있는가? 이제라도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론은 자신들의 오보나 왜곡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해 폐간이나 편집진 교체 등 논의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에 아첨하고, 정의보다 권력

을 선택한 한국 극우 보수언론의 총체적 실패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민주주의는 회복되지 않는다. 진정한 회복은, 언론이 스스로의 거울 앞에서 그간의 모든 행위와 침묵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일 때 가능하다. 그 첫걸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언론은 자신들의 절필을 고민하라. 정치인의 퇴장보다, 더 시급한 건 극우 보수언론의 반성과 쇄신이다. 윤석열을 만든 건 바로 당신들이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몰락 이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책임 역시 당신들이다.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체제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자가 통치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이 유지될 때 비로소 작동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언론이 있다. 그래서 언론은 국민과 권력 사이의 가교이자,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 언론이 무기력하거나 편향될 때, 권력은 폭주하고 국민은 눈을 가린 채 절벽으로 향한다. 이제 언론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이었는가?' 그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몰락은 또 다른 윤석열의 등장을 부추기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사설

선제적 통상 대응, 지역수출 생태계 지켜야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철강,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과 기존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에 예고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충격은 더욱 수박에 얹다. 전북자치도가 이런 위기 국면을 인지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대미 수출액은 1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5억 달러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도 달성했다. 하지만 보호무역의 칼날을 다시 휘두를 경우, 그 성과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력이나 정보력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정책적 보호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통상위기 대응 종합지원반'을 본격 가동하고 총 800억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수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대환자금과 거치기간 연장, 최대 8년까지 가능한 특례보증 등은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대응책이다.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미국 통상정책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FTA 활용 컨설팅, 현지 인증 취득 지원, 피해 신고 및 사후지원체계 구축 등 다각적 접근은 도내 수출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위기에 강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특히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는 국가 차원의 통상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전북도가 위기 대응을 단순히 '방어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 맞춤형 바이어 상담, 유망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시장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 적극적 행보다. 이와 함께 통상 전문가 매칭 확대, 수출보험·국제물류비 지원 확대는 사후 관리까지 업무에 둔 체계적인 지원책이다. 단기적인 위기 극복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 경쟁력 강화로 나아가야 하는 수출 생태계 조성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도의 이러한 대응은 지역 중소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탄탄한 하부구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지금과 같은 국제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이 같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은 타 지역에 모범이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 적용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지원 정책이 실제 기업의 문제 해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의 유연성과 속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기업들 스스로도 정부 지원을 마중물 삼아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전북도의 통상위기 대응 전략은 지역산업의 재정비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관세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실행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화재 열전



서외리 당간지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유적건조물, 불교, 당간
- 지정일-1974년 9월 27일
- 시대-조선시대
- 소재지-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98-2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인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주지국 010-2258-3734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2439-1721	진원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5312-7293
장수지국 010-8626-6049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날개 / 신경림

강에 가면 강에  
산에 가면 산에  
내게 붙은 것  
그 성가신 것들을 땀겨치고  
부두에 가면 부두에  
저자에 가면 저자에  
내가 가진 그 너절한 것들을 버린다  
가벼워진 몸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나는  
활활 새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꾸다  
그러나 어찌랴  
하룻밤새 땀겨친 것  
버린 것이 되붙으며  
내 몸은 무거워지니  
이래서 나는  
하늘을 나는 꿈을 버리지만  
누가 알았으랴  
데미로 모이고 썩어  
그것들 서서히 크고

단단한 날개로 자라리라고  
나는 다시 하늘을 나는 꿈을 꾸다  
강에 가면 강에서  
저자에 가면 저자에서  
옛날에 내가  
땀겨친 것 버린 것  
그 성가신 것  
너절한 것들을 도로 주워  
내 날개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면서

시인 약력 :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낮달',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이후 '원

격지', '산음기행', '시제', '농무' 등의 시를 발표했고 시학 해설서인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를 출간하며 작고한 시인들과 생존 시인들을 만나

기도 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바르고 정확한 뉴스로 도민 여러분을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제보-063)282-9600~3



“도심 속 향기 가득” 익산시 장미정원 새 단장

배산체육공원·어양공원 등 5곳  
공원마다 색다른 장미공원 매력  
5~10월까지 이어지는 장미 향연

익산시가 초여름을 맞아 시민들에게 화사한 꽃길과 향긋한 쉼터를 선물하고 있다.

익산시는 장미정원 내 장미가 활짝 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장미정원은 조경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배산체육공원, 유천생태습지, 중앙체육공원, 어양공원, 장미어린이공원 등 5개 공원에 조성된 공간이다.

배산체육공원은 약 5,400주의 장미가 각양각색 화려한 자태로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공원 입구에 있는 장미터널을 시작으로 ‘가브리엘 오크’, ‘더락 어센딩’ 등 다양한 품종의 장미가 산책길을 따라 다채롭게 식재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유천생태습지는 장미정원 내 벤치에 앉아 독서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도 풍경의 일부가 돼 감성을 더하고, 바쁜 일상에 여유를 선사하고 있다.

장미는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고, 고온다습한 기

후에 취약해 철저한 생육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익산시는 장미정원관리팀을 구성하고, 시기별 맞춤형 생육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관리팀은 △장미 하부 우드칩 포설로 토양 수분 유지 및 잡초 방제 △병해충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적 방제 △정기적인 제초 및 관수 작업을 통해 생육 최적화를 위한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장미정원은 예년에 비해 더 건강하게 개화하며, 풍성한 색감과 향기를 더한 경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장미는 5월부터 10월까지 개화가 이어질 예정으로, 오랜 기간 공원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장미정원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